

事實의 記錄, 《花東》卜辭의 驗辭

李旻始*

◁ 목 차 ▷

- I. 緒論
 - II. 《花東》 驗辭의 판단
 - III. 《花東》 驗辭의 내용
 - IV. 結論
 - 附錄: 《花東》 卜辭의 驗辭
-

[일러두기]

1. 본 논문에서 말하는 《花東》은 2003년에 출간된 《殷墟花園莊東地甲骨》의 약칭이다.¹⁾
2. 卜辭의 釋文은 讀者의 이해를 돕기 위해 楷書로 처리하기로 한다. 즉 ‘兪’의 경우 ‘宀’이라 隸定하지 않고 ‘賓’이라 楷書 처리한다. 글자가 卜辭에서 다르게 읽히는 경우에는 () 안에 해당 글자를 넣어 표시하기로 한다. 즉 又는 卜辭에서 有나 佑, 侑 등으로 읽히므로 각각의 내용에 맞게 ()안에 써 넣어, 又(有)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楷書 처리가 어려운 글자는 자형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偏旁을 근거로 隸定하기로 한다.
3. 卜辭 인용 시 사용되는 부호와 의미는 아래와 같다.
 - 1) □는 하나의 글자로 잘 보이지 않거나, 원래 존재했지만 잘려나가 보이지 않음을 뜻한다.
 - 2) ◻는 보이지 않는 글자가 몇 글자인 지 알 수 없음을 뜻한다.
 - 3) []안의 글자는 拓本에서는 보이지 않는 글자를 보완하여 쓴 것이다.

*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 전임강사

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殷墟花園莊東地甲骨》(全六冊), 昆明, 雲南出版社, 2003.

I. 緒論

殷墟卜辭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는 알려진 대로 前辭, 命辭, 占辭, 驗辭이다. 그 중 前辭부터 占辭에 이르는 내용이 모두 점을 칠 당시의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驗辭는 점을 친 후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史料라 할 수 있다. 그동안 卜辭의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는 命辭에 치중되어 있어 다른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前辭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형식 또한 단순하여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 반하여, 占辭와 驗辭, 그 중에서도 驗辭는 분석이 필요하고, 당시에 실제로 발생한 일을 기록한 것이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殷墟卜辭의 방대한 자료 중 驗辭를 추출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殷墟卜辭의 驗辭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花東》의 驗辭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花東》卜辭는 非王卜辭로 王卜辭와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 다른 특징들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나, 驗辭가 존재한다는 점과 《花東》卜辭의 내용이 당시의 왕인 武丁의 王卜辭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非王卜辭의 驗辭 연구라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花東》卜辭를 대상으로, 첫째 驗辭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제시하는 한편 驗辭의 범위를 규정하고, 둘째 驗辭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花東》驗辭의 판단²⁾

일반적으로 驗辭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卜辭에서의 위치를 살펴보는 것이다. 卜辭의 기본 형식을 놓고 볼 때, 驗辭의 위치는 占辭 뒤이며 占辭가 없을

2) 《花東》卜辭의 끊어 읽기는 姚萱의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의初步研究》附錄一의 釋文을 기본으로 한다.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의初步研究》, 首都師範大學 中國語言文學系 博士學位論文, 2005.

경우 命辭의 뒤에 출현한다. 만일 卜辭의 取捨 여부를 판단하는 用辭가 있다면 用辭 뒤에 온다고 할 수 있다. 즉 前辭+命辭+(占辭)+(用辭)+驗辭의 형태로 卜辭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卜辭에서의 위치만을 놓고 본다면 驗辭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卜辭는 구두점과 같은 문장 부호가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 내용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卜辭에서의 위치가 驗辭를 판단하는데 있어 좋은 근거가 되기는 하나 절대적일 수는 없다. 특히 《花東》卜辭의 경우 특징적인 몇 가지 현상으로 인해 驗辭를 판단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첫째, 行款의 특수성이다. 殷墟卜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王卜辭의 경우 行款의 형식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卜兆를 중심으로 가로나 세로의 직선 형태로 새겨져 있다. 따라서 前辭만 파악된다면 진행 방향을 쉽게 장악할 수 있고 내용 또한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다. 《花東》의 경우 王卜辭와 같이 직선 형태의 卜辭가 존재하는 것 외에도 卜兆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형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 行款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花東》의 行款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지, 卜辭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다.³⁾

둘째, 생략이 많은 내용을 들 수 있다. 王卜辭에서는 묻는 내용들이나 형식이 고정화되어 있고, 驗辭의 내용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반면 《花東》은 卜辭의 형식 자체가 王卜辭에 비해 자유로우며 驗辭의 내용이 함축적이고 생략형이어서 命辭와 관련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⁴⁾

3) 이에 관한 논의로는 劉源 〈試論殷墟花園莊東地卜辭的行款〉: 《故宮博物院院刊》2005年 第1期(總117期), 112-117쪽, 章秀霞 〈花東卜辭行款走向與卜兆組合式的整理和研究〉: 《紀念王懿榮發現甲骨文110周年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2009中國福山](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174-192쪽, 張桂光 〈花園莊東地卜甲刻辭行款略說〉: 《甲骨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東海大學, 2005), 61-71쪽 등 참조.

4) 《花東》 驗辭의 생략 현상에 대해서는 토론 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그밖에 《花東》에 보이는 省略 현상에 대해서는 朱歧祥 〈句意重於行款—論通讀花園莊東地甲骨的技巧〉: 《古文字研究》第26輯(北京, 中華書局, 2006), 30-38쪽 참조.

셋째, 用辭 뒤에 다양한 내용이 기록된다는 점이다. 王卜辭의 경우 전반적으로 用辭가 많이 쓰이고 있지 않다. 또한 用辭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用, 茲用, 不用 등만이 기록되어 있으며⁵⁾, 간혹 다른 기록들이 함께 새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驗辭라 충분히 인정할 만한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花東》은 用辭가 빈번하게 보이는 한편 用辭 뒤에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驗辭로 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在+地名’의 형식이라든지, ‘時間詞’, ‘祭祀’에 대한 기록들로 王卜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내용 및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중 筆者가 驗辭를 판단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바로 用辭와 함께 보이는 기록들이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花東》의 驗辭를 논하기에 앞서 驗辭 여부를 판단할 때 筆者가 고려했던 부분들, 특히 用辭와 함께 보이는 기록들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본 논문에서 말하는 驗辭의 성격과 범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花東》 驗辭 자체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1. 몇 가지 유형

1) 在+地名

《花東》卜辭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 중 하나는 문장의 가장 마지막, 즉 命辭나 用辭의 뒤에 在+地名이 온다는 것이다.

(1) 庚戌: 歲妣庚牢牝, 祖乙延改. 在[欸]. 一二三 《花東》311

(2) 乙丑: 歲祖乙黑牡一, 子祝. 肩卣(御)崖. 在[欸]. 一

乙丑: 歲祖乙黑牡一, 子祝. 肩卣(御)崖. 在[欸]. 一二 《花東》319⁶⁾

5) 王卜辭의 用辭에 대해서는 拙稿 〈卜辭의 取捨 표지 用辭 연구〉; 《中國文學研究》第37輯, 299-332쪽 참조.

6) 지명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甲骨文合集》(이하 《合》이라 약칭한다)에서도

- (3) 庚寅: 子入四_口于丁. 在_鹿. 《花東》320
 (4) □子_口妣庚小_宰, _貞祝. 在_狀. 《花東》323
 (5) 甲子: 歲祖甲_社, 子祝. 在_妣. 一二 《花東》330
 (6) 戊午卜: 我人擒. 子占曰: 其擒. 用. 在_罽. 一 《花東》312
 (7) 甲戌卜: 子乎(呼)_翟勿婦好. 用. 在_妣. 一 《花東》480

(1)에서 (5)는 命辭 다음에 (6)과 (7)은 用辭 다음에 在+地名이 오고 있다. 이중 (5)까지의 예는 끊어 읽기에 따라서, 즉 在+地名 앞에서 끊지 않을 경우 命辭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는 用辭 뒤에도 이러한 형식이 출현하는 점과 在+地名이 命辭에서 점치고자 하는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命辭와 분리하여 처리하였다. 사실《花東》에서 在+地名的 형식은 前辭와 命辭에서도 보이고 있다.

- (8) 丙子卜, 在_妣: 曰: 其奏. 一 《花東》15
 (9) 己酉夕: 伐羌一, 在_入. 庚戌宜一牢, 發. 一 《花東》178

(8)은 前辭에 (9)는 命辭에 각각 在_妣와 在_入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命辭나 用辭 뒤에 오는 在+地名은 어떤 성격을 지니며, 前辭나 命辭에 쓰인 기록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 것일까?

- (10) 甲午卜, 在_鹿: 子其射, 若. 一
 甲午: 弨射, 于之若. 一
 丁酉: 歲祖甲_牲一, _祝鬯一. 在_鹿. 一
 己亥卜, 在_呂: 子其射, 若. 不用.
 甲辰: 歲妣庚_牲一, _祝鬯一. 在_鹿. 二
 乙巳卜, 在_鹿: 子其射, 若. 不用.
 乙巳卜, 在_鹿: 子_弨遲彝弓, 出日. 一 《花東》37
 (11) 甲辰: 歲妣庚_牲一, _祝鬯一. 在_鹿. 一
 乙巳: 歲祖乙_牲三_牲. 在_鹿. 二 《花東》463

보이고 있다(乙丑: 歲祖乙黑牲一, 子祝. 肩_卸(御) _崔《合》22172+《合》22351).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首都師範大學 中國語言文學系 博士學位論文, 2005), 119쪽 참조.

(10)의 경우 동일한 지명이 前辭와 命辭의 뒤에 기록되어 있는데, 甲午일에 점친 내용은 前辭에 在虜라 기록하여 해당 점이 虜에서 실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丁酉일에는 命辭 뒤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역시 虜 지역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丁酉일 뒤의 己亥일에는 前辭에 在呂가 보이고, 다시 며칠 후인 甲辰일에는 命辭 뒤에 在虜라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위치가 어디인가와 관계없이 모두 점친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虜 지역에서 머물다 呂로 갔다가 다시 虜로 돌아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0)의 乙巳일과 같은 날 점을 친 (11)의 경우에도 前辭가 아닌 命辭의 뒤에 在虜이 기록되어 있다⁷⁾. 따라서 (10)과 (11)의 내용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前辭에 오거나 命辭 뒤에 나오는 지명은 모두 점을 친 장소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命辭나 用辭 뒤에 보이는 在+地名은 驗辭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前辭의 변형된 형태로 점을 친 장소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옳다.⁸⁾

앞의 예와는 달리 卜辭의 마지막에 오는 在+地名 중에는 아주 드물지만 驗辭로 판단되는 예도 존재한다.

(12) 丙申卜：子往^ㄱ，歲妣庚羊一。在^ㄱ。一二

丙申卜：子其往于^ㄱ，侃。用。一 《花東》 173

(13) 壬申卜，在^ㄱ：其^ㄱ(禦)于妣庚，^ㄱ+^ㄱ，[又]+^ㄱ。用。在^ㄱ。

《花東》 95

(12)는 丙申일에 점을 친 기록으로 자가 ^ㄱ지역에 가서 妣庚에게 羊을 제물로 바칠 것인지 묻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예에서는 卜辭의 마지막에 온 在+地名은 점을 친 장소라 판단되었다. (12)의 경우 命辭에서 往^ㄱ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점을 치는 장소는 ^ㄱ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命辭 뒤의 在^ㄱ는 자가 가고자 했던 지역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사실의 기록, 驗辭이다. (13)

7) (10)과 (11)에서 乙巳일에 점친 내용은 각각 다르다. 그러나 甲辰일에 점친 내용이 동일하고 乙巳일에 기록된 장소가 같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10), (11)의 乙巳일은 같은 날이라 볼 수 있다.

8) 齊航福은 卜辭의 마지막에 놓인 在+地名은 前辭의 변형된 형태(附記的前辭)로 점친 장소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齊航福 〈談花東卜辭中“在某”之歸屬〉: 《語文知識》2009年第4期, 51-53쪽 참조.

에서는 前辭의 지명은 犛이고 用辭 뒤의 지명은 癸로 (12)와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다만 (12)에서는 前辭에 지명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13)은 壬申일에 犛에서 점친 기록으로 妣庚에게 十宰, 十鬯을 제물로 卣(禦)제를 지낼 것을 묻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驗辭의 내용이 在癸로 마치 命辭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花東》卜辭의 특징이라 할 만한 것으로 함축적이고 생략된 형태의 기록 방법이다. 즉 命辭에서 묻는 내용이 실행된 장소를 기록함으로써 命辭의 내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⁹⁾

2) 時間詞

卜辭의 마지막에 時間詞만 등장하는 경우 역시 驗辭로 볼 것인가 아니면 前辭의 연장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존재한다. 時間詞가 卜辭의 마지막에 기록되는 것은 王卜辭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으로 주로 점친 날이 속한 달을 기록하고 있다.¹⁰⁾ 《花東》卜辭에서는 月이 아닌 하루 중 구체적인 시간대를 기록한 예가 보인다.¹¹⁾

(14) 乙未卜：乎(呼)多宁(賈)¹²⁾服西鄉. 用. 矢(戾). 一

乙未卜：乎(呼)多宁(賈)服西鄉. 用. 矢(戾). 《花東》290

(15) 庚戌卜：丁各(格). 用. 夕. 一

9) (13)과 같은 사건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庚을 天干으로 하는 날에 癸에서 妣庚에게 卣(禦)제를 드릴 것을 점친 기록이 보인다. ‘庚卜, 在癸：歲妣庚三卣, 又鬯二, 至卣(禦)卣百牛又五’(*花東* 320). 만일 두 卜辭의 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庚은 (13)壬申의 9일 후(점친 날 포함)인 庚辰일일 가능성이 크다.

10) 이러한 예는 빈번하게 보이는데, ‘丙午卜, 貞：奏成. 七月’(*合* 1352), ‘甲子卜, 何貞：王邁雨. 一月’(*合* 30078), ‘丙子卜, 貞：王賓歲亡(無)尤. 在四月’(*合* 38513) 등 全 시기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11) 드물지만 王卜辭와 같은 형식의 기록도 있다. ‘癸卜：丁步[今]戌. 卣月, 在 卣. 一’(*花東* 262).

12) 宁을 賈로 읽는 문제에 대해서는 李學勤 《新出青銅器研究》(北京, 文物出版社, 1990), 144-145쪽 참조.

庚戌卜：丁各(格). 用. 夕. 二三

庚戌卜：子惠發乎(呼)見(獻)丁，暨大亦尗. 用. 昃. 一 《花東》 475

用辭 뒤에 時間詞인 昃, 夕이 출현하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시간의 기록들은 王卜辭와 같이 접쳐진 때와 관련된 기록이라기보다는 실제로 命辭에서 점친 내용이 이루어진 시간을 기록한 거라 보는 것이 옳다. 즉 命辭의 내용이 생략된 驗辭이다. 보통 王卜辭에서는 驗辭에 시간을 기록할 때 해당 사건도 함께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16) 丁酉卜：今日雨，余曰：戊雨. 昃允雨自西. 《合》 20965

丁酉일에 오늘 비가 올 것인지 묻고, 驗辭에서 해질 무렵(昃) 서쪽에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14), (15)의 昃과 夕도 王卜辭라면 命辭에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함께 기록했을 것이나, 생략형이 많다는 《花東》의 특성상 여기서도 시간만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¹³⁾ 따라서 (14)의 昃은 命辭인 ‘乎(呼)多宁(賈)服西鄉’이 발생한 시간을 뜻하며, (15)의 夕과 昃도 각각 ‘丁各(格)’과 ‘子乎(呼)發見(獻)丁，暨大亦尗’가 발생한 시간을 뜻한다.

(15)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庚戌일의 점으로 두 가지를 묻고 있다. 하나는 ‘왕의 방문’이며 다른 하나는 ‘왕에게 예물을 바칠 인물의 선택’이다¹⁴⁾. 각각 用辭인 用이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子는 왕이 방문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驗辭의 기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子는 해질 무렵(昃) 신하들에게 준비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저녁(夕)이 되자 왕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卜辭들이 보인다.

(17) 甲辰：宜丁牝一，丁各(格)，**矢**(昃)于我，翌(日)于大甲. 用. 一二

13) 만일 (16)의 驗辭를 《花東》식으로 표현한다면 ‘昃’이나 ‘昃自西’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14) 본문에서 말하는 왕은 《花東》 卜辭에서는 丁을 지칭하며 口로 쓴다. 口을 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당시의 왕인 武丁을 지칭한다는 데에는 異見이 없다.

- 甲辰卜：于來乙，又于祖乙**宰**。用。一二
 乙巳卜：子大**冫**。不用。一
 乙巳卜：丁各(格)，子**冫**小。用。一
 乙巳卜：丁各(格)，子**冫**。用。一二
 乙巳卜：丁[各(格)]，子**弱**巳**冫**。不用。一
 乙巳卜：丁各(格)，子[于庭]冫。用。一
 乙巳卜：子于[寢]冫。不用。一
 己酉卜：翌日庚，子乎(呼)多臣**覿**見(獻)丁。用。不率。《花東》34
 (18) 庚戌卜：子乎(呼)多臣**覿**見(獻)。用。不率。 《花東》454
 (19) 庚戌卜：隹(唯)王令余乎(呼)**覿**，若。一 《花東》420

시간의 흐름은 甲辰-乙巳-[丙午]-[丁未]-[戊申]-己酉-庚戌로 이어지며, (15)의 庚戌과 (18), (19)의 庚戌은 같은 날이다. 《花東》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당시 왕은 자주 子를 방문하여 제사를 집행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17)에서도 알 수 있듯이 《花東》의 주인이었던 子는 왕을 맞이하는데 무척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듯하다. 왕의 방문을 점쳐 묻는 것은 기본이고, 예를 행할 규모(大冫, 冫小), 장소(庭, 寢)를 묻고 있으며, 예를 행할 신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己酉일과 (18) 庚戌일의 命辭로 보아 子는 왕이 방문할 경우 예를 행할 신하로 본래 多臣(臣의 신분인 사람들)을 고려했던 듯하다. 多臣을 시켜 왕에게 **覿**見(獻)하는 것이 좋은지 묻고 있는데¹⁵⁾, 앞의 (15) 庚戌일에는 오히려 多臣이 아닌 發과 大를 염두에 두고 점을 치고 있다. (15)의 결과를 뜻으로 기록했다면, (17)과 (18)의 결과는 用辭 뒤의 不率이다. 姚萱은 率을 ‘皆’(다, 모두)로 해석한 金祥恆의 의견을 따라 不率을 ‘不皆用’으로 보았다. 즉 왕에게 예를 행할 때 多臣이 다 참여한 것이 아니라 (15)의 發과 大만이 참여하였기에 不率(모두였던 것은 아니다)이라 기록한 것으로 풀이하였다.¹⁶⁾ 姚萱의 해석

15) **覿**과 見은 모두 動詞이다. 見은 獻으로 읽으며 ‘바치다’의 뜻을 지닌다. **覿**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는데, 최근 張玉金이 **覿**은 奉이며, 獻의 의미를 지닌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見에 대해서는 裘錫圭 〈甲骨文中的見與視〉: 《甲骨文發現一百周年學術研討會論文集》(臺北, 文史哲出版社有限公司, 民87), 1-6쪽 참조. 張玉金의 의견은 〈釋甲骨文中的“覿”〉: 《古文字研究》第28輯(北京, 中華書局, 2010), 36-40쪽 참조.
 16)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의 初步研究》(首都師範大學 中國語言文學系 博士學位論文, 2005), 66-67쪽. 姚萱은 不率를 用辭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왕에게 예를 행한 인물은 驗辭 芻이 기록된 卜辭의 發과 大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생된 사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不率 역시 驗辭라 판단된다.

이외에도 干支가 기록된 예도 있다.

(20) 己巳卜: 子_𠄎用. 庚. 一 《花東》391

구체적인 의미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략적인 내용은 子가 _𠄎(지명이나 부족 명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행위를 할 것인지 묻고 있다. 用辭 뒤에 기록된 庚으로 보아 다음 날인 庚午일에 점친 내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3) 祭祀의 기록

《花東》의 驗辭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卜辭의 마지막에 출현하는 제사에 관한 기록이다.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자.

(21) 甲午卜: 子速, 不其各(格). 子占曰: 不其各(格), 乎(呼)鄉. 用. 香祖甲_彡. 一二

甲午卜: 丁其各(格), 子惠_彡丑_攸(肇)丁. 不用. 香祖甲_彡. 三

《花東》288

(22) 庚辰卜: 于[既]口_宰, 攸_牝一, 鬯_妣庚. 用. _彡香. 一 《花東》428

卜辭의 끝에 제사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21)과 같이 命辭의 내용이 제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경우와, (22)처럼 제사에 관한 점을 치고 있기는 하나 命辭와는 다른 내용이 기록된 경우이다. 특히 (21)처럼 命辭가 제사와 관련 없는 내용일 경우 驗辭 판단에 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王卜辭의 예를 비교한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 (23) 癸酉卜, 尹貞: 旬亡(無)𠄎(憂). 甲戌𠄎祭于上甲, 在 𠄎 《合》 24280
 (24) 癸酉卜, 貞: 王旬亡(無)𠄎(憂). 在正月. 甲戌祭𠄎甲 𠄎 《合》 35650
 (25) 癸酉 𠄎亡(無)𠄎(憂), 𠄎吉. 在 𠄎 翌上甲. 《合》 35400

(23)은 2期 出組, (24)와 (25)는 5期 黃組 卜辭로, 향후 10일간(旬) 근심이 될 만한 일이 없을지 점치고 있다. 占辭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마지막은 모두 제사에 관한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周祭라 불리는 조상들에게 행해진 주기적인 제사들이다¹⁷⁾. 이러한 제사들은 항상 10일(旬)이 끝나는 癸를 天干으로 하는 날에 기록되며, 다음 날인 天干이 甲인 날에 진행되는 제사와 그 대상을 기록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驗辭라기보다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똑같은 5期の 癸酉일일 지라도 (24)는 祭𠄎甲의 전날이고, (25)는 翌上甲의 전날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앞서 제시한 《花東》의 祭祀 기록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제사와 관련 없는 (21)의 내용을 살펴보자. 첫 번째 卜辭에서는 子가 왕을 초대하면(速) 오지 않을지(不其格) 묻고 있다¹⁸⁾. 占辭에서는 왕이 오지 않을 것이며, 鄉을 행하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두 번째 卜辭에서는 왕이 오면 狝 𠄎을 예물로 바칠 것인지(肇) 점치고 있다. 왕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卜辭는 채택되었고(用), 왕이 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예물을 바치려던 卜辭는 채택되지 않았다(不用). 결국 두 卜辭 다 왕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미 있는 것은 두 卜辭 모두 마지막에 𠄎祖甲 𠄎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왕이 오는 것과 祖甲에게 𠄎, 𠄎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관련이 없음에도 𠄎祖甲 𠄎이라 기록한 것은 위의 王卜辭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21)에서 점친 날은 甲午일로 바로 甲을 天干으로 하는 조상에게 제사를 행하는 날이다¹⁹⁾. 따라서 왕이 오는 것과는 별도로 그날 이루어진 제사를 기록한 것으

17) 흔히 周祭라 불리는 5가지 제사들로, 조상들의 天干에 해당되는 날에 주기적으로 행해졌으며, 出組와 黃組 卜辭에서 자주 보이고 있다. 周祭에 관한 내용은 常玉芝 《商代周祭制度》,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7 참조.

18) 速의 考釋과 卜辭에서의 의미는 陳劍 《說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丁’—附: 釋‘速’》; 《故宮博物院院刊》 2004年 第4期, 51-63쪽 참조.

19) 제사가 행해지는 날과 제사 대상은 같은 天干을 지닌 경우가 많은데, 특히 周祭일 경

로, 王卜辭의 제사 기록처럼 ‘祖甲에게 咎, 彡제를 거행한 날’을 뜻한다. (22)의 彡咎 역시 庚辰일에 행해졌던 妣庚에 대한 제사의 기록으로 앞의 卜辭와 같은 성격이라 할 수 있다. (21)의 경우 命辭에서 祖甲에 대한 언급이 없어 뒤에 제사 대상을 기록하였지만(咎祖甲彡), (22)는 命辭에서 이미 妣庚에 대한 제사임을 나타냈기에 彡咎라고만 기록하였다.

위의 기록들은 일종의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어 驗辭가 아님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卜辭의 마지막에 출현하는 제사와 관련된 기록은 모두 시간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일까? 앞의 在+地名의 예에서도 예외가 있었듯이 제사와 관련된 기록에도 驗辭의 성격을 띠는 내용들이 있다. 이는 命辭의 내용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구체적인 예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2. 用辭의 부가기록

黃天樹는 〈關於無名類等的用辭〉에서 無名類 卜辭의 用辭 뒤에 출현하는 내용을 ‘驗辭’와 ‘用辭의 부가기록(附記刻辭)’으로 구분하였다²⁰⁾. 또한 ‘用辭의 부가기록’에 대해 채택된 점이 시행된 상황을 설명하거나, 命辭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라 풀이하였다. 따라서 점친 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不用의 경우 실행되지 않았기에 뒤에 부가기록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黃天樹가 제시한 예들은 다음과 같다.

- (26) □丑貞：翌日 彫 □。茲用。甲寅。 《屯南》2837²¹⁾
 (27) [丙]辰貞：又伐于父丁。茲用。丁巳。 《合》32224
 (28) 辛亥貞：又歲于大甲。茲用。[甲寅] 彫 五牢。 《屯南》856
 (29) 甲子貞：升歲一牢。茲用。又升[大乙]一牢，大丁一牢，大甲一牢，□一牢。 《屯南》2420

우 엄격하게 지켜진다. 예를 들면 甲을 天干으로 하는 날에는 祖甲, 妣甲 등의 조상에게 제사가 행해진다.

20) 黃天樹 〈關於無名類等的用辭〉: 《殷墟王卜辭的分類與斷代》(臺北, 文津出版社, 民國80) 附錄二, 333-341쪽.

21) 《屯南》은 《小屯南地甲骨》의 약칭이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 《小屯南地甲骨》(全五冊), 上海, 中華書局, 1980.

- (30) 己巳卜：其又歲于南庚。茲用。一牛。 《合》32608
 (31) 己未卜：其又歲于雍己。茲用。十牢。 《屯南》3794

黃天樹에 따르면 (26), (27)의 茲用 뒤의 기록들은 命辭가 실행된 날이며, (28), (29)는 命辭가 실행된 상황이고, (30)과 (31)은 命辭를 보충 설명해주는 내용으로 모두 驗辭가 아닌 用辭이다. 姚萱는 黃天樹의 의견을 따라 《花東》用辭 뒤의 기록들 중 일부를 ‘用辭의 부가기록’으로 분류하였다. 아래의 예들을 살펴보자.²²⁾

- (32) 甲申卜：惠小歲改于祖甲。用。一羊。一二
 甲申：惠大歲又于祖甲。不用。一二 《花東》228
 (33) 己未卜：子其尋宜，惠往于日。用。往。一。一二三 《花東》297
 (34) 己酉夕：伐羌一，在入。庚戌宜一牢，發。一 《花東》376
 (35) 辛巳卜：于癸改旬牛。不用。于甲改。一 《花東》474

姚萱는 (32)의 一羊은 命辭 改于祖甲에 대해 羊 한 마리를 제물로 썼음을 보충 설명한다고 보았다. 특히 用辭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34)의 庚戌宜一牢, 發에 대해서는 用辭가 생략된 형태로 보았는데, 이를 驗辭라 본 《花東》의 의견에 반박하여 「실제로 妣庚에게 제사지낼 때 사용한 제물의 기록(實際祭祀妣庚時用牲之記錄)」이라 여겼다. 姚萱는 黃天樹의 의견에서 더 나아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用辭의 부가기록’은 用의 뒤뿐 아니라 不用의 뒤에도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用辭의 부가기록’과 驗辭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점을 친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사항이면 用辭로 보고 제어할 수 없는 사항이면 驗辭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用辭의 부가기록’과 驗辭 모두 점친 내용이 일어난 후 기록된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의 대상과 종류를 결정하는 문제나 出行 등에 관한 기록은 用辭로, 사냥에서 잡을 동물이라든가 날 씨와 같이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실들에 대한 기록은 驗辭로 판단하였다.

우선 姚萱이 제기한 不用에서도 ‘用辭의 부가기록’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은 黃天

22)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首都師範大學 中國語言文學系 博士學位論文, 2005), 59-70쪽. 이하 姚萱의 의견은 모두 이 부분을 참조할 것.

樹의 의견에 反하는 내용이지만, (3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花東》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여기서는 두 번째 의견인 인간의 제어 가능 여부에 따라 用辭와 驗辭로 나눈다는 의견에 대해 좀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먼저 앞에서 다루었던 (15)의 내용을 다시 보자.

庚戌卜：丁各(格). 用. 夕. 一

庚戌卜：丁各(格). 用. 夕. 二三

庚戌卜：子惠發乎(呼)見(獻)丁，暨大亦尗. 用. 昃. 一 《花東》 475

왕과 관련된 동일 사건에 대한 卜辭들이고 모두 用辭 뒤에 時間詞를 기록하였지만, 姚萱은 夕은 驗辭로, 昃은 用辭로 판단하였다. 왕에게 예를 행할 인물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장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用辭라 본 것이며, 왕이 올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子의 능력 밖의 일이기에 驗辭로 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인간의 의지가 작용했던 그렇지 않던, 점친 후에 기록된 일들은 모두 점괘의 검증을 거쳐 발생된 사실들이라는 점이다. 즉 점을 쳐서 얻은 점괘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姚萱이 주장하는 ‘用辭의 부가기록’과 驗辭는 같은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인간의 의지로 제어 가능한 일일지라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用辭로 판단해야 할지, 아니면 驗辭로 보아야 할지 기준이 모호하게 된다. 이외에도 (15)에서 보듯이 서로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해 점을 치고 그 결과로 기록된 시간들을, 하나는 인간의 의지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用辭로, 다른 하나는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驗辭로 나눈다는 것은 卜辭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점친 후에 일어난 사실의 기록이라는 성격으로 볼 때, ‘用辭의 부가기록’도 驗辭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토론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前辭의 변형인 ‘在+地名’, 時間詞의 기능을 갖는 ‘祭祀의 기록’을 제외한, 점친 내용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실의 기록들을 모두 驗辭의 범위에 넣도록 하겠다.²³⁾

23) 본 논문에서는 姚萱이 用辭로 처리한 것 중 상당 부분을 驗辭로 판단하여 다루었다. 姚萱이 제시한 用辭의 예는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의初步研究》(首都師範大學 中國語言文學系 博士學位論文, 2005), 59-70쪽을 참조할 것.

Ⅲ. 《花東》驗辭의 내용

《花東》의 驗辭는 수렵, 제사와 관련된 卜辭에서 빈번하게 보이며, 당시 왕이던 武丁과 武丁의 아내인 婦好와 관련된 내용에도 자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질병과 관련된 내용 등에서 驗辭가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크게 狩獵, 祭祀, 疾病과 災殃, 王과 婦好, 其他의 5가지로 분류하여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狩獵

王卜辭에서 수렵과 관련된 卜辭에 驗辭가 자주 보이는 것처럼 《花東》에서도 이러한 유형에서 자주 보이고 있으며, 주로子在 사냥에서 획득한 짐승의 종류와 수를 기록하고 있다.

- (36) 壬申卜：子往于田，從昔_听。用。擒四鹿。一 《花東》 35
 (37) 乙未卜：子其往于_阝，獲。不_龜。獲三鹿。一
 乙未卜：子其往于_阝，獲。子占曰：其獲。用。獲三鹿。二 《花東》 288
 (38) 辛未卜：擒。子占曰：其擒。用。三麇。一二 《花東》 234
 (39) 癸酉卜：子其擒。子占曰：其擒。用。四麇、六免。
 癸酉卜：子其往于田，從_刻。擒。用。一 《花東》 395
 (40) 辛酉卜：從曰昔_听，擒。子占曰：其擒。用。三鹿。 《花東》 295

모두 子의 사냥과 관련된 내용들이며, 특정 지역을 시작(從+地名)으로 사냥을 할 경우 짐승을 잡을 수 있을지(獲, 擒), 특정 지역에 사냥하러 가면(往于+地名) 성공할 수 있을지 묻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주로 사슴(鹿, 麇)이 잡혔음을 알 수 있다.

- (41) 癸丑卜：翌日甲寅往田。子占曰：其往。用。從西。一二 《花東》 316

癸丑일에 점친 것으로 다음 날인 甲寅일에 사냥을 가도 될 것인지 묻고 있다. 占辭에서 알 수 있듯이 子는 가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驗辭에서는 西 지역부터

사냥을 시작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從西는 ‘翌日甲寅從西往田’의 생략형으로 볼 수 있다.

(42) 乙未卜：子其田，從_求豕，遯. 用. 不豕. 一二三 《花東》 50

자가 畝지역에서부터 사냥을 시작하면 豕(돼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遯) 점치고 있다. 驗辭로 기록된 不豕는 사냥의 결과로 豕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驗辭의 내용은 命辭에서 기대했던 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같이 새겨진 乙未일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

(42.1) 乙未卜：子其往田，惠豕求，遯. 子占曰：其遯. 不用. 一
乙未卜：子其往田，若. 用. 一
乙未卜：子其往田，惠鹿求，遯. 用. 一

命辭의 내용은 모두 자가 사냥을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 豕를 구하면(求) 발견할 수 있을지(遯), 사냥이 순조로울지(若), 鹿을 구하면 발견할 수 있을지를 묻고 있다. 유일하게 기록된 占辭를 보면 子는 豕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卜辭는 채택되지 않고, 鹿을 발견할 수 있을지 묻는 卜辭가 채택되었다. 즉 豕를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 (42)에서는 그렇다고 본 것이고, (42.1)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상반되는 두 점괘에 대한 결론으로, 채택된 卜辭에 그 결과(不豕)를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辛巳卜：子惠宁(賈)視用逐. 用. 獲一鹿. 一 《花東》 259

命辭에 사냥에 관한 표현은 보이지 않으나 驗辭의 내용으로 볼 때 사냥을 전제로 점친 것으로 판단된다. 宁(賈)는 《花東》에서 자주 보이는 글자로, 말의 관리나 판매를 담당하는 신분이거나 이러한 일이 행해지던 기관으로 여겨진다²⁴⁾. 子는

24) 《花東》에는 宁(賈)와 말(馬)이 함께 보이는 卜辭가 많은데, 위의 예 이외에도 宁(賈)에게 말을 요청하는 문제(《花東》 146) 및 宁(賈)에게 요청할 인물을 선택하는 문제

짐승을 쫓을 때(逐), 즉 사냥을 나갈 때 宁(賈)에(계)서 본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좋은지 묻고 있다. 결과는 鹿 한 마리를 잡았다는 것으로 언뜻 命辭의 내용과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子用宁(賈)視逐, 獲一鹿’의 생략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수렵과 관련된 驗辭에는 사냥에서 잡은 동물들이나 사냥이 시작된 지역 등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祭祀

수렵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祭祀와 관련된 내용에도 驗辭가 자주 보이고 있다.

(44) 辛巳卜：于癸^改甸牛. 不用. 于甲^改. 一 《花東》474

癸(癸未)일에 甸牛를 제물로 ^改를 행할지 묻고 있다. 不用이라는 用辭로 보아 이 짐은 채택되지 않았다. 결과는 驗辭에 기록된 대로 甲(甲申)일에 이루어졌다. 즉 점괘를 보고 하늘의 뜻을 파악한 후 쫓일이 아닌 甲일에 ^改를 행한 것이다.

(45) 丙申卜：子其往^改, ^改妣庚. 用. 羊. 一二 《花東》173

자가 ^改에 가서 妣庚에게 제사를 지낼 때 ^改를 행할지 묻고 있다. 驗辭는 제물로 사용된 羊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改妣庚羊’의 생략으로 볼 수 있다.

(46) 乙亥：歲祖乙黑牡一, 又^牲一, 惠子祝. 用. 又^簋. 一二 《花東》481

(47) 辛酉卜：子其^改黑牝, 佳(唯)^牲往, 不雨. 用. 妣庚^改 一二三

《花東》123

(46)의 又^簋는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命辭에서 점친 내용과 함께 실

(《花東》179)에서부터 새말(新馬)과 宁(賈)에 있는 말(宁(賈)馬)의 사용처에 이르기 까지(《花東》367) 다양한 내용이 보이고 있다.

행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47)은 驗辭가 훼손되어 妣庚만이 보이고 있다.

(48) 甲辰夕：歲祖乙黑牡一，惠子祝，若，祖乙侃。用。翌日**烝**。一 《花東》 6

歲는 제물의 처리 방법으로 쓰였다. 甲辰일 저녁(夕)에 짐을 친 기록으로 祖乙에게 歲의 방법으로 黑牡(검은 수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子가 祝을 맡으면(祝의 행위를 하면), 순조롭고(若), 祖乙가 기뻐할 것인지(侃) 묻고 있다. 驗辭는 翌日**烝**로 언뜻 보기에 앞에서 다룬 時間詞의 성격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짐친 내용의 목적이 되는 제사라 할 수 있다. 즉 翌日**烝**을 행하기에 앞서 子가 祝을 맡을 것인지 물은 것으로, 驗辭는 子가 祝을 맡아 翌日**烝**을 행하였음을 생략된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다음을 보면 보다 분명하다.

(49) 甲辰夕：歲祖乙黑牡一，子祝，翌日**烝**。一 《花東》 350

(48)과 짐친 날짜와 시간, 제사 대상, 종류 등이 모두 일치한다. 다만 앞에서는 祝을 행할 인물로 子가 적합할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여기서는 子가 祝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翌日**烝**를 행하는 것에 대해 묻고 있다. 殷 나라 사람들은 중요한 일, 특히 제사에 관해서는 제물의 종류나 숫자와 같이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도 일일이 단계적으로 짐을 쳐 결정하였는데, (48), (49)도 이러한 예 중 하나이다.

(50) 己酉夕：翌日**烝**歲妣庚黑牡一。庚戌**釁**牝一。一二三四 《花東》 457

(51) 己酉夕：伐羌一，在入。庚戌宜一牢，發。一

庚戌：宜一牢，在入，發。一二

庚戌：宜一牢，在入，發。一

《花東》 178

己酉일 저녁(夕)에 짐쳐진 내용들이다. 짐을 친 날짜와 시간은 같지만 짐친 내용과 결과는 각각 다르다. (50)은 妣庚에게 翌日**烝**를 거행하면서 黑牡 한 마리를 歲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짐쳤으나, 驗辭에 다음 날인 庚戌일에 牝(암소) 한 마리를 **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51)은 羌인 1명을 伐의 방법으로

제물로 쓸 것인지 점친 내용이다. 점을 친 시간이 저녁이었던 것으로 보아 다음 날인 庚戌일에 지낼 제사의 내용을 미리 결정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命辭와는 달리 驗辭에서는 庚戌일에 牢(우리에서 기른 소) 1마리를 宜 처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⁵⁾. 이것은 그 아래에 보이는 庚戌일의 점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己酉일의 驗辭가 바로 庚戌일에 점쳐진 내용이다. 庚戌일의 점이 채택되면서 채택되지 않은 己酉일의 卜辭에 실제 발생한 사실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다. (50)과 (51) 모두 제사의 종류와 대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제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 점친 것으로, 命辭와 다른 결과를 각각 驗辭에 기록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사 卜辭의 驗辭는 命辭와 관련된 제사의 기록이 주를 이루며, 제물과 제사 대상을 기록한 내용도 일부 보이고 있다.

3. 疾病과 災殃

《花東》에는 질병이나 재앙과 관한 기록이 많지 않으며, 驗辭의 내용도 생략이 많고 매우 함축적이다.

(52) 甲寅卜：乙卯子其學商，丁侃．用．子尻．

甲寅卜：丁侃于子學商．用．一 《花東》 150

(53) 甲寅卜：乙卯子其學商，丁侃．子占曰：其又(有) **𠄎**艱．用．子尻．一二三四五 《花東》 336

(54) 甲寅卜：乙卯子其學商，丁侃．用．一

甲寅卜：乙卯子其學商，丁侃．子占曰：又(有)求(咎)²⁶⁾．用．子尻．二三 《花東》 487

甲寅일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점친 기록들이다. (52)를 보면 乙卯일에 子가 學商을 하면 왕이 기뻐할 것인지(丁侃) 묻고 있다²⁷⁾. 이에 대한 결과로 子尻라 기

25) 여기서 發의 의미는 분명치 않다. 《花東》의 釋文은 發을 人名으로 보고 있으나, 姚萱은 제물의 처리 방법으로 射를 뜻한다고 보고 있다.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首都師範大學 中國語言文學系 博士學位論文, 2005), 68쪽 참조.

26) 여기서의 求是 咎로 읽히며 재앙 등의 좋지 않은 일을 뜻한다. 裘錫圭 〈釋求〉: 《古文字論集》(北京, 中華書局, 1992), 59-69쪽 참조.

록하고 있는데 驗辭의 내용만을 봐서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비해 (53)에는 占辭가 기록되어 ‘其又(有)𠄎艱’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𠄎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으나 뒤에 艱이 함께 있고, 역시 占辭가 기록된 (54)에서는 ‘又(有)求(咎)’라 기록된 것으로 보아 좋지 않은 일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즉 子는 占辭마다 나쁜 일이 발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驗辭 子尻는 바로 이 占辭에서 예언한 결과라 할 수 있다.²⁸⁾ 占辭를 통해 子尻의 성격을 알았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55) 乙卯卜：其𠄎(禦)大于癸子，𠄎𠄎一，又𠄎。用。又(有)疾。一二三
《花東》76

(56) 乙卯卜：其𠄎(禦)大于癸子，𠄎𠄎一，又𠄎。用。又(有)疾子金。一二三
《花東》478

甲寅의 다음 날인 乙卯일의 卜辭로 子癸²⁹⁾에게 재앙을 제거하는 제사인 𠄎(禦)제를 드리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도 역시 驗辭가 기록되어 있는데 (55)는 又(有)疾, ‘병이 났다’로 기록하고 있고, (56)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又(有)疾子金, ‘子金이 병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³⁰⁾. 그렇다면 앞의 甲寅일의 驗辭 子尻는 바로 子金의 병세를 나타내는 말로 볼 수 있다.

(57) 丙辰：歲妣己𠄎一，告尻。一

丙辰卜：于妣己𠄎(禦)子尻。用。一二

丙辰：歲妣己𠄎一，告子尻。用。一二 《花東》336

(58) 庚申卜：歲妣庚𠄎一，子尻𠄎(禦)往。一二三四五六 《花東》209

27) 命辭의 내용만으로 볼 때 위의 예들은 모두 ‘王과 婦好’에서 다루어져야 하나, 실질적인 내용이 王과는 관련이 없고 ‘疾病과 災殃’에 관한 것이어서 여기서 다루기로 한다.

28) 驗辭 子尻에 대한 내용은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의 初步研究》(首都師範大學 中國語言文學系 博士學位論文, 2005), 57-58쪽 참조.

29) 癸子는 子癸의 도치로 殷墟卜辭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다. 卜辭에 보이는 어휘의 도치 현상에 대해서는 拙著 《甲骨文例研究》(臺北, 臺灣古籍出版社, 2003), 311-324쪽을 참조할 것.

30) 又(有)疾子金 역시 子金又(有)疾의 도치이다. 《花東》釋文 1742쪽 참조.

乙卯일에 질병이 발생한 후, 다음 날인 丙辰일과 며칠 후인 庚申일에 子尻의 일로 각각 妣己와 妣庚에게 卣(禦)제를 거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庚申일까지 子尻에 대해 점친 것으로 보아 병세가 여러 날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姚萱은 위의 예들을 통해 《花東》驗辭의 내용이 다수 생략되는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³¹⁾. 姚萱의 지적대로 占辭나 다른 관련 기록 없이 (52)만을 놓고 子尻를 보았다면, 驗辭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花東》의 驗辭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특정 내용만을 기록하는 생략형이라는 형식상의 특징을 갖는다.

(59) 辛卜: 婦母(母)曰子, 丁曰: 子其又(有)疾. 允其又(有). 一二
《花東》 331

왕이 子에게 병이 생길 거라고 말한(예언) 사실에 대하여 점으로 확인하고 있다. 驗辭의 내용으로 보아 子에게 병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60) 丁丑卜, 在 嵩: 子其惠舞 舞, 若. 不用.
子 弱 惠 舞 舞, 于 之 若. 用. 多 万 又 (有) 災, 引 爻. 《花東》 206

子가 舞 舞를 하면 순조로울지(若) 묻는 내용이다. 驗辭에 多万에게 재앙이 발생했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子가 舞 舞하는 것과 多万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王卜辭에서 万은 祭儀에서 춤추는 의식을 맡았던 사람으로, 비를 구하는 卜辭 등에서 보이고 있다³²⁾.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花東》의 万도 王卜辭에서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된다.³³⁾

31)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首都師範大學 中國語言文學系 博士學位論文, 2005), 57쪽.

32) ‘惠万乎(呼)舞, 又(有)大雨’((合) 30028), ‘万其奏辛, 邁大雨’((合) 30131) 등의 예가 있다. 万에 관한 내용은 裘錫圭 《古文字論集》(北京, 中華書局, 1992), 207-209쪽 참조.

33) 《花東》에서는 万이 두 군데서만 보이는데, 하나는 위의 (60)이고 다른 하나는 ‘万家見(獻)’((花東) 226)이다.

4. 王과 婦好

《花東》卜辭에는 다른 非王卜辭와는 달리 당시의 왕과 왕비인 婦好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驗辭가 기록된 예들도 보이고 있다. 먼저 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자.

- (61) 辛卜: 子其又(有)攷(肇)臣自 𠄎 一二
辛卜: 丁曰: 其攷(肇)子臣. 允. 一 《花東》 257
- (62) 壬卜, 在 麓: 丁畀子 鬲 臣. 一
壬卜, 在 麓: 丁曰: 余其攷(肇)子臣. 允. 二 《花東》 410

후일과 다음 날인 壬일의 기록이다. 왕이 자에게 臣을 내릴 것(肇子臣)이라 말한 사실이 이루어질지 점쳤다. 驗辭는 간략하게 允 한 글자로 기록하였다. 允은 卜辭, 특히 驗辭에서 ‘과연’, ‘정말로’의 뜻을 지니며 命辭에서 점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사용한다. 驗辭에 允이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왕이 자에게 臣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 (63) 甲午卜: 子乍(作) 𠄎 分卯, 其告于丁, 若. 一
甲午卜: 子乍(作) 𠄎 分卯, 子 弱 告丁. 用. 若. 一 《花東》 391

命辭의 의미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으나 대략적인 뜻은 ‘자가 乍(作) 𠄎 分卯를 하면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면(告) 순조로울까요(若)?’이다. 채택된 두 번째 卜辭의 내용은 왕에게 알리지 말지(弱告) 물은 것으로, 驗辭 若으로 보아 왕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진행시켰고 경과도 순조로웠던 것으로 보인다.³⁴⁾

- (64) 己亥卜: 母(母)往于田, 其又(有)史(事). 子占曰: 其又(有)史(事). 用.
又(有)宜. 一 《花東》 288

34) 姚萱은 若 한 글자만 驗辭로 쓰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여기서도 驗辭라기보다는 命辭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즉 본래 命辭에 속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卜辭의 마지막에 보충된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의 初步研究》(首都師範大學 中國語言文學系 博士學位論文, 2005), 58-59쪽.

왕과 관계된 일이 발생할 것이니(有事) 사냥을 가지 말아야 할지((毋往于田)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해 子는 일이 있을 것(有事)이라 판단하고 있다³⁵⁾. 驗辭로 기록된 又(有)宜가 바로 왕과 관련된 又(有)史(事)의 구체적인 내용이다³⁶⁾.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기록하여 《花東》驗辭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65) 辛亥卜：丁曰：余不其往，母(毋)速，一
 辛亥卜：子曰：余丙速，丁令子曰：往暨婦好于**夏**麥，子速，一
 壬子卜：子**弱**速，乎(呼)禽，用，一 《花東》 475
 (66) 壬子卜：子丙速，用，[丁]各(格)，乎(呼)禽，一二 《花東》 420

辛亥일과 壬子일에 점친 기록으로 子가 왕을 초대하는 문제에 대해 묻고 있다. (65)의 驗辭 ‘母(毋)速’은 命辭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초대하지 않았음을 기록하였다. 같은 날인辛亥일과 그 다음 날인 壬子일에는 丙일(丙辰)에 子가 왕을 초대하는 문제에 대해 점치고 있다³⁷⁾. 驗辭는 각각 ‘子速’와 ‘[丁]各(格)，乎(呼)禽’으로, 子가 초대(速)를 했고 왕이 와서(格) 함께 마신(禽) 사실을 기록했다. 왕을 초대하지 말고(弱速) 子 혼자서 마실지(自禽) 묻는 卜辭도 보인다.

- (67) 乙卯卜：子其自禽，弱速，用，一二
 乙卯卜：子其禽，弱速，用，三 《花東》 454

점친 날이 초대하려고 하는 丙일(丙辰)의 하루 전인 乙卯일인 것으로 보아 (65), (66)에서 점친 내용과 같은 일을 묻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婦好와 관련된 卜辭는 왕에 비해 적으며, 驗辭가 기록된 것도 드물다.

35) 又(有)史(事)의 의미에 대해서는 魏慈德 《殷墟YH127坑甲骨卜辭研究》(臺灣國立政治大學 中國文學系 博士學位論文, 2001), 100-103쪽 참조.
 36) 宜와 丁이 함께 보이는 卜辭로 ‘弱宜丁’《花東》 255), ‘宜丁牝一，丁各(格)，矢(戠)于我’《花東》 335, 《花東》 420) 등이 있다.
 37) 丙일은辛亥일로부터 6일 뒤(辛亥일 포함)인 丙辰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68) 辛亥卜：發攷(肇)婦好入新三，**隳攷**(肇)婦好新二。用。往**壘**。一
 辛亥卜：子其以婦好入于**坎**，子乎(呼)多**卣**(御)正見(獻)于婦好，**攷**(肇)
 新十，往**壘**。一 《花東》 63

첫 번째 卜辭에 驗辭 往**壘**가 기록되어 있으며, 發과 **隳**이 각각 婦好에게 紆를 바칠 것인지 묻고 있다. 命辭의 내용과 驗辭 往**壘**가 의미상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두 번째 卜辭를 통해서야 명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卜辭의 뜻은 ‘자가 婦好를 모시고(以) **坎**에 들어간 다음 (**坎**에서) 多**卣**(御)正에게 명하여 婦好에게 紆를 바치도록 한 후, (마지막으로) **壘**로 갈까요?’로 목적지인 **壘**로 향하면서 필요한 과정을 점쳤다고 볼 수 있다. 즉 婦好와 함께 **壘**로 향하면서 중간에 **坎**를 거치게 되어 紆와 같은 **坎**지역의 특산품을 바칠 인물과 수량을 점친 것이다. 用辭와 驗辭를 통해 婦好에게 紆를 바친 이는 發과 **隳**이며, 이 일이 끝난 후 목적지 **壘**로 향했음을 알 수 있다.

5. 其他

앞에서 살펴본 狩獵, 祭祀 등의 卜辭 외에 아래와 같은 예에서도 驗辭가 출현하고 있다.

- (69) 癸巳卜：自今三旬又(有)至南。弗**𠄎**(及)³⁸⁾三旬，二旬又三日至。
 亡(無)其至南。
 出自三旬迺至。一 《花東》 290

癸巳일인 오늘부터(自今) 30일이면 南에 이를 수 있을지(三旬有至南), 없을지(無其至南)를 묻고 있다. ‘弗**𠄎**(及)三旬，二旬又三日至’가 驗辭로 30일이 걸리지 않고(弗及三旬) 23일(二旬又三日)만에 이르렀음을 기록하였다.³⁹⁾

38) **𠄎**(及)에 대한 고증은 姚萱 《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的初步研究》(首都師範大學 中國語言文學系 博士學位論文, 2005), 89-93쪽 참조.

39) 관련된 내용으로 ‘癸未卜：今月六日 于生月又(有)至南。子占曰：其又(有)至，**𠄎**月**𠄎**’《花東》 159)가 있다.

- (70) 甲戌卜, 在_乙: 子又令[_乙], 丁告于_乙. 用. 子_乙. 一二 《花東》480
 (71) 丙戌卜: 子其往于_乙, 若. 用. 子不宿, 雨. 一 《花東》451

(70)의 子_乙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71)은 子_乙가 _乙에 가는 것에 대해 점친 것으로 驗辭에 子_乙가 _乙에는 갔으나 비가 와서(雨) 그곳에 묵지는 않았다고(子不宿)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驗辭로 기록하여 남긴 것으로 보아 본래 _乙에서 묵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IV. 結論

지금까지 《花東》卜辭를 대상으로 ‘《花東》驗辭의 판단과 《花東》驗辭의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花東》驗辭의 판단’에서는, 驗辭는 일반적으로 卜辭의 마지막에 출현하나 《花東》의 경우 마지막에 출현하는 ‘在+地名’은 대부분 驗辭가 아닌 前辭의 변형임을 상기시켰다. 여기에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祭祀의 기록’ 역시 驗辭가 아닌 時間詞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時間詞인 辰, 夕은 命辭의 내용이 발생한 시간을 나타내는, 생략된 형태의 驗辭로 쓰였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 말하는 驗辭란 점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일들에 대한 기록임을 설명하였다.

‘《花東》驗辭의 내용’은 驗辭 자체에 대한 논의로, 《花東》의 驗辭는 내용상 주로 ‘狩獵’, ‘祭祀’와 관련된 卜辭에 출현하며, 당시의 ‘王과 왕비인 婦好’와 관련된 내용에도 다수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밖에 ‘疾病’, ‘災殃’과 관련된 卜辭에 驗辭가 출현하며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몇몇 卜辭에서도 驗辭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花東》驗辭는 대부분 생략된 형태로 기록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특히 占辭가 생략된 상태에서 시간이나 인명 등의 핵심 내용만이 기록되거나, 命辭와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기록될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花東》의 驗辭를 판단하는 데에는 卜辭에서의 출현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후 관계의 내용 파악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花東》은 시기적으로 殷墟卜辭의 1期라는 이른 시기의 卜辭이며 非王卜辭인 만큼, 王卜辭

에 비해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驗辭의 형식에서도 정형화되지 않은 문형과 내용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緒論에서 밝혔듯이 殷墟 王卜辭의 驗辭 연구를 위한 선행 연구이다. 이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王卜辭의 驗辭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殷墟卜辭의 驗辭에 대해 보다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小屯南地甲骨》(全五冊), 上海, 中華書局, 198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甲骨文合集》(全十三冊), 北京, 中華書局, 198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殷墟花園莊東地甲骨》(全六冊),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3
 朱歧祥〈句意重於行款—論通讀花園莊東地甲骨的技巧〉:《古文字研究》第26輯, 北京, 中華書局, 2006
 李啟始《甲骨文例研究》, 臺北, 臺灣古籍出版社, 2003
 이민영〈卜辭의 取捨 표지 用辭 연구〉:《中國文學研究》第37輯, 2008
 姚萱《殷墟花園莊東地甲骨卜辭의 初步研究》, 首都師範大學 中國語言文學系 博士學位論文, 2005
 李學勤《新出青銅器研究》, 北京, 文物出版社, 1990
 陳劍〈說花園莊東地甲骨卜辭의 “丁”一附: 釋“速”〉:《故宮博物院院刊》2004年 第4期
 張玉金〈釋甲骨文中的“夨”〉:《古文字研究》第28輯, 北京, 中華書局, 2010
 張桂光〈花園莊東地卜甲刻辭行款略說〉:《甲骨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東海大學), 2005
 章秀霞〈花東卜辭行款走向與卜兆組合式的整理和研究〉:《紀念王懿榮發現甲骨文110周年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2009 中國福山),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9
 黃天樹〈關於無名類等的用辭〉:《殷墟王卜辭의 分類與斷代》, 臺北, 文津出版社, 民80(1991)
 裘錫圭《古文字論集》, 北京, 中華書局, 1992
 裘錫圭〈甲骨文中的見與視〉:《甲骨文發現一百周年學術研討會論文集》, 臺北, 文史哲出版社有限公司, 民87(1998)
 齊航福〈談花東卜辭中“在某”之歸屬〉:《語文知識》2009年 第4期

劉源〈試論殷墟花園莊東地卜辭的行款〉:《故宮博物院院刊》2005年 第1期

【中文提要】

本文以《殷墟花園莊東地甲骨》為研究範圍(以下簡稱《花東》), 對《花東》卜辭的驗辭, 分《花東》驗辭的判據和《花東》驗辭的內容兩個部分來進行研究, 得出以下結果:

第一、《花東》驗辭的判據: 驗辭一般居於命辭之後, 若有占辭或用辭便位於占辭或用辭的後面, 即出現於卜辭的最後。不過《花東》卜辭的末尾常有令人難以捉摸的內容, 比如‘在+地名’、時間詞及祭祀記錄等。本文強調大部分句末的‘在+地名’是附記的前辭, 並指出‘辰’或‘夕’等部分時間詞, 是占卜內容被實現的時間, 而‘𠄎’等幾條祭祀記錄則是當時時間詞用的, 與驗辭無關。至於驗辭的範圍, 本文將占卜之後所發生的與占卜有關的事情皆以驗辭來處理。

第二、《花東》驗辭的內容: 本文將《花東》驗辭依其卜辭的內容分為五種類型, 即田獵、祭祀、疾病和災殃、王和婦好及其他。其中驗辭最常見的就是田獵和祭祀卜辭, 還有與王和婦好有關的卜辭中也有不少例子。

《花東》驗辭最大的形式特徵就是省略現象, 在不少卜辭中可發現被省略的簡單的驗辭。這種現象可能與《花東》時期較早有關, 也與其為非王卜辭有密切關係。所以, 我們研究《花東》驗辭時不但要考慮其卜辭中的位置, 也要把握卜辭內容的來龍去脈。

【主題語】

殷墟花園莊東地甲骨, 花東, 甲骨文, 卜辭, 驗辭, 用辭

【附錄】《花東》卜辭의 驗辭

번호	花東	卜辭
1	6	甲辰夕：歲祖乙黑牡一，惠子祝，若，祖乙侃。用。翌日舌。一
2	34	己酉卜：翌日庚，子乎(呼)多臣貞見(獻)丁。用。不率。一
3	35	壬申卜：子往于田，從昔听。用。擒四鹿。一
4	50	乙未卜：子其田，從求豕，遘。用。不豕。一二三
5	63	辛亥卜：發攷(肇)婦好入新三，嵬攷(肇)婦好新二。用。往鑿。一
6	76	乙卯卜：其卣(禦)大于癸子，誓豕一，又鬯。用。又(有)疾。一二三
7	95	壬申卜，在律：其卣(禦)于妣庚，誓十宰，[又]十鬯。用。在麓。
8	123	辛酉卜：子其攷黑牝，隹(唯)循往，不雨。用。妣庚。一二三
9	150	甲寅卜：乙卯子其學商，丁侃。用。子尻。一
10	173	丙申卜：子往卣，歲妣庚羊一。在卣。一二 丙申卜：子其往卣，攷妣庚。用。羊。一二
11	178	己酉夕：伐羌一，在入。庚戌宜一牢，發。一
12	206	子弼惠舞叶，于之若。用。多万又(有)災，引鬯。
13	228	甲申卜：惠小歲攷于祖甲。用。一羊。一二
14	234	辛未卜：擒。子占曰：其擒。用。三覓。一二
15	237	入肉丁。用。不率。一
16	257	辛卜：丁曰：其攷(肇)子臣。允。一
17	259	辛巳卜：子惠宁(賈)視用逐。用。獲一鹿。一
18	288	乙未卜：子其往于阝，獲。不龜。獲三鹿。一 乙未卜：子其往于阝，獲。子占曰：其獲。用。獲三鹿。二 己亥卜：母(母)往于田，其又(有)史(事)。子占曰：其又(有)史(事)。用。又(有)宜。一
19	290	癸巳卜：自今三句又(有)至南。弗(及)三句，二句又三日至。 乙未卜：乎(呼)多宁(賈)服西鄉。用。矢(戾)。一 乙未卜：乎(呼)多宁(賈)服西鄉。用。矢(戾)。
20	295	辛酉卜：從曰昔听，擒。子占曰：其擒。用。三鹿。
21	297	己未卜：子其尋宜，惠往于日。用。往。一二三
22	316	癸丑卜：翌日甲寅往田。子占曰：其往。用。從西。一二
23	331	辛卜：婦母(母)曰子：丁曰：子其又(有)疾。允其又(有)。一二
24	336	甲寅卜：乙卯子其學商，丁侃。子占曰：其又(有)罷艱。用。子尻。一二三四五

25	376	己酉夕: 伐羌一. 在入. 庚戌宜一牢, 發. 一
26	391	己巳卜: 子 ^圖 貞. 用. 庚. 一 甲午卜: 子乍(作)丑分卯, 子弱告丁. 用. 若. 一
27	395	癸酉卜: 子其擒. 子占曰: 其擒. 用. 四覓、六免.
28	410	壬卜, 在 ^麓 : 丁曰: 余其 ^攸 (肇)子臣. 允. 二
29	420	壬子卜: 子丙速. 用. [丁]各(格), 乎(呼)會. 一二
30	451	丙戌卜: 子其往于 ^尗 , 若. 用. 子不宿, 雨. 一
31	454	庚戌卜: 子乎(呼)多臣 ^貞 見(獻). 用. 不率. 一
32	457	己酉夕: 翌日 ^舌 歲妣庚黑牡一. 庚戌 ^彤 牝一. 一二三四
33	463	癸卯: 歲祖乙 ^牝 一, ^叔 鬯一. 在 ^龜 , 子祝. 一二三
34	474	辛巳卜: 于癸 ^改 旬牛. 不用. 于甲 ^改 . 一
35	475	庚戌卜: 子惠發乎(呼)見(獻)丁, 暨大亦 ^貞 . 用. 貞. 一 庚戌卜: 丁各(格). 用. 夕. 一 庚戌卜: 丁各(格). 用. 夕. 二三 辛亥卜: 丁曰: 余不其往. 母(母)速. 一 辛亥卜: 子曰: 余丙速. 丁令子曰: 往暨婦好于 ^豐 麥. 子速. 一
36	478	乙卯卜: 其 ^卸 (禦)大于癸子, ^費 社一, 又鬯. 用. 又(有)疾子金. 一二三
37	480	甲戌卜, 在 ^尗 : 子又令[^禦], 丁告于 ^尗 . 用. 子 ^貞 . 一二
38	481	乙亥: 歲祖乙黑牡一, 又 ^牝 一, 惠子祝. 用. 又 ^簋 . 一二
39	487	甲寅卜: 乙卯子其學商, 丁侃. 子占曰: 又(有)求(咎). 用. 子 ^尻 . 二三

* 수록된 驗辭는 《花東》 甲骨片의 번호순으로 나열되었다. 驗辭는 굵게 표시하였다.

** 수록된 내용은 《花東》 驗辭의 개괄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된 참고용으로, 빼야 되거나 수록되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투고일: 2011. 7. 15 / 심사일: 2011. 7. 20~8. 5 / 게재확정일: 2011. 8. 10